

글말교실 소감문

20230331 정연선

글쓰기 기말 보고서 제출을 위해 참여한 글말교실은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이며 게임을 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힌트 같은 존재였다. 나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. 주제를 정했는데 너무 뻘한 주제이거나 상관관계 등 측정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주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다. 2번 정도 시도한 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떤 주제를 정할지에 대한 생각에 막막했다. 나는 일을 하다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. 하지만 이 글말교실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활동으로 교수님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공간 제약 없이 편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좀 더 편하게 도움을 청하며 문제의 답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었다. 처음에는 주제 선정에 대해 글말교실에 참여했고 기존에 내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주제를 선정할 때 기존에 있는 주제와는 차별성을 갖거나 참신한 주제를 택해야 하고 참고할 자료의 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유의점을 알려주셔서 이 점을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했다. 그 후에 주제 선정에 통과했지만 개요와 목차라는 또 다른 벽에 직면했다. 나에게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었던 것 같다. 내 나름대로 목차와 개요 선정을 한 상태로 글말교실에 참여했고 목차나 개요에서 더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내 주제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. 또 연구의 필요성에선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해 주셔서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감도 잡은 것 같다. 처음 논문을 쓰는 과정이라 막막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지레 겁부터 먹었는데 글말교실은 글을 쓰는 방법이나 글을 쓸 때 방향성 잡는 법 등은 물론 1학년인 나에게 어려운 존재라고 느껴서 긴장했던 존재인 교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. 글말교실에 참여하고 글을 쓰기 위한 틀이 잡히니 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었다. 글말교실이란 기회가 없었다면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내 주제의 문제점을 파악 못하고 글을 쓰다가 깨닫고 주제를 바꾸기를 반복했을 것이다. 문제에 직접 부딪혀보는 것 또한 좋지만 나에게 많은 시간이 없었고 글을 쓰는 경험 또한 부족했기에 글말교실이라는 배움의 기회가 나에게 정말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이용한 나 자신이 대견한 기분이 들었다.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어느 정도 완성된 글을 가지고 글말교실에 참여했다면 지금 내 글에서 더 추가해야 할 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 파악해 더 완벽한 글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. 하지만 쓰는 시점이 시험기간과 겹쳐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 글말교실을 더 효율적으로 참여해보려고 한다.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피드백해 주신 교수님과 글말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장시켜 주신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.